Pray for Rohingya
EXPECTANTLY SOWING

로힝야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2021년 10월 3일

소망 없는 이들을 위한 소망

불확실함과 혼란의 때에 로힝야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이 다시 찾아 왔다.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후유증으로 인해 많은 로힝야인들이 소망을 잃은 채 절망하고 있다. 소망 없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로힝야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절과 고통을 마주 해야 했고, 그들의 미래 또한 암울하다. 전 세계에 있는 로힝야인들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 자유, 그리고 소망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믿음 안에 서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올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영역을 놓고 기도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코로나19 : 어려운 시기 속에 찾는 소망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부유한 서구열강에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인권이 박탈되고 뿌리 채 뽑혀버린 최하위 계층인 로힝야인들의 현실은 얼마나 더 최악이었겠는가.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은 군부 쿠데타 이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버린 미얀마를 파괴시키고 있다. 의료용 산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수백에서 수천의 생명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의 난민들은 훨씬 더 강력한 통행 제한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다. 악조건 속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말레이시아의 많은 로힝야인들은 수개월째 수입이 없는 상태이다. 어느 곳에 있는 로힝야인이든 그들은 가장 최악의 경제적, 의료적 위기를 느끼고 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
-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 **수입이 없는 자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주시도록**
-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도록**

소셜 미디어 : 좋은 미래를 향한 소망

많은 로힝야인들도 SNS를 활발하게 사용한다. 이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 우리와 연결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미디어 사역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로힝야 언어로 된 광고를 사용해서 신앙과 관련된 대화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한다. 이 사역의 목표는 소망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깔때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맨 위에서부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폭넓은 접근으로 시작해서 성령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광고가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처음에 그들과 보이스 통화로 대화를 시작해서 그 다음 직접적인 만남과 더 나아가서는 제자 훈련의 기회로 이어지게 된다.

많은 로힝야인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도록 기도하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 **갈급한 로힝야인들이 SNS에서 광고를 발견할 수 있도록**
- **로힝야인들이 그 광고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응답할 수 있도록**
- **'첫 응답자'들인 로힝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주시도록**
- **어떤 미디어를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사역팀에게 지혜와 창의력을 주시도록**

회복력 : 하나님께 내린 소망의 닻

회복력은 많은 로힝야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삶의 변화에 적응하고 역경으로부터 '튀어 오르는' 것은 그들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로힝야인들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된다. 진정한 회복력은 단순히 개인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고 그로부터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고 회복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9절)

이 말씀으로 로힝야인들에게 선포하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알 게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로힝야인들에게 끝이 아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주시도록**
- **로힝야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를 발견하도록**
- **비극과 상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 **로힝야인들이 그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pray4rohingya.com